



처용가(處容歌)의 동경(東京)

저자 (Authors)	윤영옥
출처 (Source)	국어국문학 78 , 1978.12, 173-176 (4 pages) The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78 , 1978.12, 173-176 (4 pages)
발행처 (Publisher)	국어국문학회 The Society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073786
APA Style	윤영옥 (1978). 처용가(處容歌)의 동경(東京). 국어국문학, 78, 173-176.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6/30 15:22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處容歌의 東京

尹 榮 玉

新羅 憲康王代 作品이라고 하는 ‘處容歌’를 읽으면서, 그 맨 첫 句節 “東京明期月良”의 ‘東京’을 訓讀한 분이 셋 있다. 梁柱東·池憲英 金善琪教授가 그 분들인데, 金善琪教授는 “시불”로 읽고 있으면서 “東京은 毋論 羅京 慶州를 指稱함인데……, 所謂 ‘東京’의 稱이 公式으로 成宗六年에 定하여졌으나, 俗稱으로 羅代에 전작부터 그 號가 있었음을 確知할 수 있다.”(朝鮮古歌研究 p.385)하여 新羅의 東京을 認定하면서 ‘시불’로 읽었다. 池憲英教授는 ‘서불’로 읽고, 풀이하여 ‘서울, 慶州’(鄉歌麗謠新釋 p.70)라고만 하였다. 金善琪教授는 “현강 왕적에는 東京을 ‘새쇼불’로 읽었으리라고 생각한다.”(現代文學 155호)하여 ‘東京’을 認定하고 읽지만 ‘새쇼불’이라 하였다.

이 외의 분들은 전부 ‘東京’이라 그대로 音讀하였다. 예를 들면, 金俊榮教授는 慶州를 ‘東京’이라 불렀음은 이 노래를 지었다는 憲康王代 以前부터이므로, 이것도 그대로 音讀함이 좋을 듯하다.”(鄉歌詳解 p.55)하여, 모두 新羅時代의 ‘東京’을 認定하고 있는 立場에서의 音讀이었다.

이와 같이 處容歌의 “東京明期月良”을 읽으면서 ‘東京’에 별다른 關心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이 事實이다. 또 ‘東京’을 訓讀한 분들도 新羅時代의 ‘東京’을 認定한 바탕위에서의 訓讀이었다.

新羅時代의 ‘東京’을 認定하는 그 根據를 각기 다음에 두고 있다.

- ㄱ <三國遺事> 圓光西學條의 “又東京安逸戶長貞孝家在左本殊異傳載”(小倉)
- ㄴ <高麗史> 樂志의 ‘東京’(梁柱東)
- ㄷ 斷俗寺神行禪師碑文의 “禪師俗姓金氏東京御里人也”(梁柱東)

㉠은 <三國遺事> 編撰當時의 表現이니까, 지금의 慶州地方의 指稱하는 號稱으로 新羅時代에 ‘東京’이 있었느냐의 問題에 답하지 못한다.

‘서불’이라고 읽어야 한다는 梁柱東教授는 오히려 ‘東京’이 俗稱으로 新羅時代에 있었음을 ㉡, ㉢의 引例로 主張했다. 그런데 歷史敘述書에는 高麗以前의 ‘東京’의 記錄例를 보여주지 않고, ‘東京’은 高麗成宗六年에 붙여진 名稱으로 밝히고 있다. (東京留守官慶州本新羅古都始祖赫居世王開國建都……太祖十六年敬順王金傳來降國除爲慶州二十三年陞爲大都督府……成宗六年改爲東京留守高……<麗史志> 卷第十一地理二, <東京雜記> 卷之一, <海東釋史> 續卷第十, <慶尙道地理志> 등). 그래서 이들 記錄間의 矛盾을 解決해야 한다. 梁柱東教授는 ㉡, ㉢에 根據하여 (다른 분들은 다 梁教授의 意見을 따랐을 뿐) ‘東京’을 新羅의 俗號라 했는데, <麗史>樂志의 ‘東京’은 그 ‘東京’이란 말을 쓴이가 朝鮮時代의 사람이고, 設使 이 노래들이 高麗를 거쳐 朝鮮에까지 불려졌다 하더라도 그 根源을 新羅에 두었기 때문에 高麗以來 불려진 新羅의 首都 ‘東京’과 關聯지어 (大概 노래의 題名이 없기에 大部分의 古歌들이 地名과 關聯지어 命名된 다른 예와 같이) 붙여진 이름일 터이니(東京即雞林府 <麗史> 乘志) 정히 斷言할 수 없고, 다만 曰 神行禪師碑文의 “東京御里人也”가 問題로 남는다.

이 碑는 分明 新羅 憲德王 五年에 建立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碑文의 첫머리와 끝부분을 보면,

“唐衛尉卿國相兵部令兼修城府令伊干金獻貞撰東溪沙門靈業書……元和八年歲次癸巳九月庚戌朔九日戊午建”

이라 되어 있다. 끝부분은 當時 中國年號를 쓰는 것이 慣例임에 비추어 분계될 것 없으나, 이 碑文을 撰한 金獻貞에 冠한 職銜에 注目하지 않을 수 없다. <大東金石總覽>에서도 “……獻貞事實未詳……碑首結銜稱皇唐衛尉卿是獻貞曾仕於唐而後歸國設官者惜史無可放耳”라 하여 그의 史實을 밝힐 수 없음을 哀惜해 했고, 그의 <三國史記> 등의 史書에도 그에 대한 言及이 없다. 그리고 보면, 金獻貞은 新羅의 伊干이건 하나 唐에서 官職을 갖고 산 新羅人이다, 衛尉卿은 唐六典의 하

나인 衛尉寺卿으로 “掌邦國器械文物之政令 凡大祭祀大朝會則供其羽儀節鉞金鼓帷幣蕙葦之事”하던職이니, 이를 맡은 그는 唐皇側近의人物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그의 눈과 머리는 唐의 그것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唐의 눈과 머리로써는 新羅의 首都가 “東京御里”로 밖에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殊異傳>의 圓光法師傳에서는 圓光法師를 紹介하여 “法師俗姓薛氏王京人也”라 表現했다. 그렇다면 “東京御里人也”라 한 것은 ‘唐京’에 대한 ‘東京’으로 볼 수 있다. 곧 ‘東京’은 唐側에서 본 新羅의 王京이지 新羅側에서 自稱한 것이 아니며, 당시 民家들의 입에서 불리어질 汚稱으로서의 新羅首都는 더욱 아니었을 것이다.

또 <東京雜記> 卷二 人物條에 “東京老人史失其名 新羅敬順王降高麗 隱居不從高麗 成宗幸東京 勅有司搜訪隱滯丘園者 又勅旌忠臣孝子 老人作詩二篇 獻內相王融”이라 있으나, 이도 老人自身이 한 말이 아님을 알 수 있다. 神文王五年에 五小京을 두었으나 首都自體를 區劃하여 東西京으로 나누었다는 記錄도 없으며, 高麗가 三京을 둘 때도 首都를 開京에다 두고, 西京의 對稱으로 東京을 指稱했던 것이다.

이렇게 볼때 新羅의 ‘東京’은 否定되고 만다. 新羅의 ‘東京’이 否定되면 <處容歌>의 東京은 어떻게 볼 것인가. (1) 當代新羅인들이 自己의 首都를 ‘시불’·‘서불’·‘세소불’로 呼稱했고, 그것을 表記할 때 “東京”으로 되었거나, (2) 그것이 어떤 모습으로 불리어지다가 高麗以後에 慶州를 指稱하는 ‘東京’으로 바뀌었거나, (3) 이 노래자체가 高麗彌後에 지어 불려졌거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金善琪教授는 梁教授의 ‘시불’을 否定하고 ‘세소불’로 읽어야 한다고 실제로 ‘사라불’이라 읽고 있다. 그러면서 兩者 共히 “國號徐羅伐又徐伐 今俗訓京字云, 徐伐以此故也 或云斯羅又斯盧”의 <三國遺事>의 記錄으로 引證하고 있는데, 만약 이 <遺事>의 記錄이 通했다면, 그것을 代身해서 ‘東京’을 썼을까 疑心된다.

“……意石知所在 時以爲神……因作處容歌……”(興地勝覽)

(a) “時人以爲神人後人異之作處容歌”(麗史, 大東韻王) (b)의 記錄이 所謂 新羅處容歌를 탈함인지, 高麗處容歌를 말한 것인지는 尙사리 分揀되지 않는다. 群鬼呪詞의 成立을 鼻荆即以後로 보며, 또 火鬼의

呪詞가 志鬼以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三國史節要>에 處容所過處羸疲皆癒”라는 記錄과 <三國遺事>의 “每月夜歌舞於市”를 아울러 考慮한다면, 處容이 불렀다는 處容歌는 處容以後 後人의 作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當時 處容이 부른 노래는 다른 것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의 (2), (3) 그 어느 쪽이 될 可能性이 크다.

現在 <樂章歌詞>에 전하는 所謂 高麗處容歌를 巫歌라 본다면, 處容의 形象을 주로 그리고 있으나 根潭說話(木풀이)도 함께 노래불러졌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다. 이러한 根潭說話의 唱化와 아울러 그 一部分으로 新羅處容歌라고 하는 것도 形成되었으리라 推測해 볼 수 있다. 高麗處容歌의 “新羅聖代昭聖代 天下太平 羅侯德處容사바”의 ‘新羅’에 有關한 ‘東京’을 생각할 수 있다. 그렇다면 所謂 新羅處容歌의 生成을 處容의 “歌舞於市”의 ‘歌’에 關聯지을 수 없고, (處容의 歌는 別로 있었을 것이다.) 處容以後의 後人, 오히려 高麗時代 (‘東京’과 또 後人異之作處容歌와 關聯지어)에 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新羅佛敎의 相關性도 新羅首都圈文學에 대립되는 文學이라는 설도 再考의 餘地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古小說의 ‘房子’ 素材

金 鉉 龍

一. 緒 言

房子는 주로 宮中の 內殿이나 妃嬪에 소속된 여자 종을 일컫었다. (房子 給非宮中者 擇各可婢子爲之——<세종실록 권4>, 所謂房子 雖與 宮人 差有間焉……所謂房子 卽慈殿所屬也——<정조실록 권2>), 且房子